

현안^과 과제

- 한미 통상 미결 과제와 대응 방안
-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과제



1. 한미 FTA 발효 1주년

○ 2013년 3월 15일에 한미 FTA는 발효 1주년을 맞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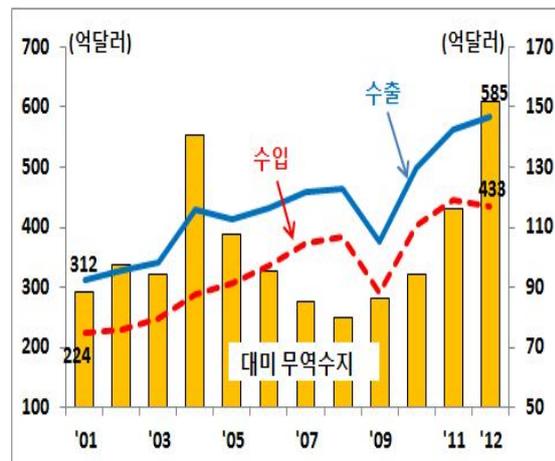
- 2013년 현재 총 10건의 FTA를 통해 총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거나 혹은 체결됨으로써 이들 대상국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경제 영토가 확대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EU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총 10건에 이르는 FTA를 체결
 - 특히 EU와의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7.8%(2011년 명목기준)로 확장
- 한미 FTA는 2013년 3월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이하게 됨
 - 한미 FTA 공식 협상이 시작된 지 약 6년여만에 FTA 협상이 타결되고 2012년 3월 15일에 공식 발효
 - 2012년 한국의 대미 무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하여 수출은 585억달러, 수입은 438억달러를 기록
 - 대미 무역수지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2년 152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
- 한미 FTA 1주년을 맞이하여 FTA를 통한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구분	대상	일자
발효	칠레	2004년 4월 1일
	싱가포르	2006년 3월 2일
	EFTA	2006년 9월 1일
	ASEAN	2007년 6월 1일
	인도	2010년 1월 1일
	EU	2011년 7월 1일
	페루	2011년 8월 1일
	미국	2012년 3월 15일
타결	터키	2012년 3월 26일
	콜롬비아	2012년 8월 31일

자료 : 외교통상부.

<대미 수출입 현황>



자료 : 무역협회.

2. 한미 FTA의 성과)와 한계

1) 수출 측면

○ (세계 경기 불황 속 대미 수출 호조) FTA 발효 이후 대미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전보다 비중이 확대되고 수출증가율도 호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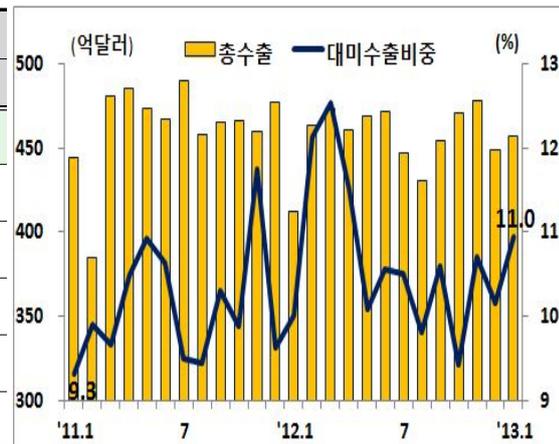
- 대미 수출은 다른 주요수출국과 비교할 때 2012년 호조를 보였으며, 수출증가율도 총수출증가율을 상회
 - 2012년 대미 수출증가율은 4.1%로 FTA가 기발효된 ASEAN(10.2%)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대EU 수출은 유럽 경기 침체로 크게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중국의 성장률 하락 및 중국의 유럽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12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총수출증가율이 2011년 19.0%에서 2012년 -1.3%로 급락한 것을 고려할 때 대미 수출은 호조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비중이 증가
 - 2012년 대미수출은 연간 585억달러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1%에서 10.7%로 증가
 - 월별로 보면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비중이 12.5%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하락했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대미 수출이 회복되며 2013년 1월 11.0%까지 증가

< 주요국별 수출 및 수출증가율 비교 >

국가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562	12.8	585	4.1
중국	1,342	14.8	1,343	0.1
일본	397	40.8	388	-2.2
EU	557	4.1	494	-11.4
ASEAN	718	35.0	791	10.2
세계	5,552	19.0	5,479	-1.3

자료 : 무역협회.

< 총수출액과 대미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1) 한미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3월 15일~2013년 1월까지 자료를 사용해야 하나 자료 분석의 명확성과 부분적 자료 사용시 수출과 수입의 계절적 효과 발생 등을 고려하여 2011년과 2012년 연간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음.

○ (주력 제조업제품 수출 증대) 자동차부품 등 주력 제조업 제품의 대미 수출이 한미 FTA를 통해 평균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 FTA의 관세 인하로 수혜를 보게 된 자동차부품과 석유제품이 한미 FTA발효 이후 수출 증대에 기여
 - 석유제품 : 2012년 11.9%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2012년 561억달러 품목 중 최다 수출을 기록
 - 자동차부품 : 2.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져 12.4%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 합성수지 : 평균 6.5%에 달하는 관세가 인하되면서 2012년에 27.1%달하는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
 - 고무제품(타이어) : 4%수준이었던 관세 철폐로 2012년 대미 수출증가율은 8.6%를 기록
- 이외에도 광학기기, 전선, 금형, 조명기기들은 관세 인하 효과로 2011년 대비 20~70%에 이르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 2012년 한미 FTA 관세 혜택 품목의 수출 추이 >

(단위 : 억달러, %)

품목	2011				2012			
	전체		미국		전체		미국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부품	230.9	21.8	50.2	21.8	246.1	6.6	56.4	12.4
석유제품	516.0	63.7	25.9	-25.0	560.9	8.7	28.9	11.9
합성수지	195.6	14.7	4.8	28.0	195.6	0.0	6.0	27.1
고무제품(타이어)	51.6	24.9	16.6	27.4	55.9	8.4	18.0	8.6
광학기기	39.2	-2.9	1.3	24.3	42.5	8.5	1.6	25.3
전선	35.2	18.3	1.2	41.2	36.8	4.6	1.8	54.1
금형	22.2	27.9	1.3	-17.4	24.9	12.0	2.2	70.9
조명기기	12.6	38.5	1.3	32.3	16.8	32.7	1.8	40.3

자료 : 무역협회, 기획재정부.

주 :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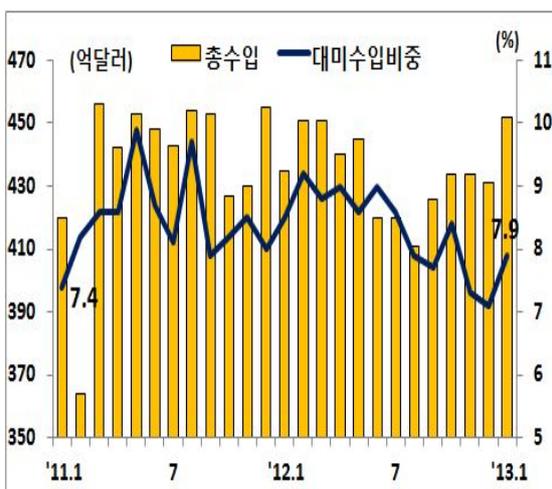
2)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2) 수입 측면

○ (대미 수입 소폭 둔화) FTA 발효 이후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은 소폭 감소
 - 2012년 대미 수입은 433억달러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8.5%에서 2012년 8.3%로 소폭 감소
 - 월별로 보면 2011년 5월 대미수입의 비중은 9.9%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 12월 7.1%로 감소했다가 2013년 1월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
 - 대미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FTA의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
- 대미 수입은 FTA 발효 이후 다소 부진했으나, 다른 주요 수입국들과 비교했을 때 수입증가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대미 수입증가율은 총수입증가율 -0.9%보다 낮은 -2.8%로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입은 다소 부진
 - 그러나 2012년 대미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13.1%p 감소하여 중국(-27.3%p), ASEAN(-22.7%p)보다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대미 수입은 2012년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히려 부진세를 보였지만 FTA 발효로 수입의 부진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 및 대미 수입 비중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 주요국 대상 수입증가율 추이 >

(단위 : 억달러, %)

국가	2011		20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447	10.3	433	-2.8
중국	864	20.8	808	-6.5
일본	683	6.3	644	-5.8
EU	474	22.5	504	6.2
ASEAN	531	20.5	520	-2.2
세계	5,244	23.3	5,196	-0.9

자료 : 지식경제부.

○ (주요 농산물 수입 감소) 한미 FTA 협상시 피해가 우려됐던 농산물의 경우 2012년 수입이 전년대비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미 FTA 발효시 큰 피해가 우려되었던 2012년 미국 농수산물 수입은 62.6억달러로 전년대비 -14.6%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나타냄
 - 육류 : 쇠고기(-20%), 돼지고기(-23.3%), 닭고기(-28.9%) 등 주요 미국산 육류 제품의 수입은 FTA 발효 이후 감소
 - 곡류 : 밀(-13.8%), 옥수수(-87.3%)의 수입은 감소하였고, 밀가루(11.1%), 옥수수가루(2.8%) 등 제분용 곡류는 증가
 - 사료 : 전체 사료 수입은 2012년 16.2% 증가했으나, 미국산 사료 수입은 2012년 14.5% 감소
- 한편 오렌지 등 과실류와 와인, 담배 등 일부 기호식품의 경우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큰 폭의 수입 증가세를 나타냄
 - 2012년 과실류의 수입은 2011년 3.0억달러보다 약 1억달러(34.7%) 증가한 4.0억달러 기록 (오렌지 30.2%, 포도 14.2% 증가)
 - 채소류 수입도 전년대비 36.8%, 과일주스 45.4%, 담배 및 주류 등 기호식품 33.3% 증가

<주요 농수산물 총수입액과 대미 수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품목	2011				2012			
	전체		미국		전체		미국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농림수산물	69.4	24.5	73.3	28.0	72.1	4.0	62.6	-14.6
곡류	21.9	58.2	10.3	45.9	18.1	-17.7	5.4	-47.7
육류	36.5	66.7	13.2	89.5	30.5	-16.4	10.4	-21.1
낙농제품	9.6	67.0	2.1	94.3	7.6	-20.3	2.0	-4.2
사료	30.1	22.9	18.3	8.9	35.0	16.2	15.7	-14.5
임산물	45.5	28.4	2.1	-0.2	39.7	-12.6	1.7	-20.1
과일주스	1.8	30.4	0.6	-1.9	2.1	13.6	0.9	45.4
과실류	8.7	28.1	3.0	30.9	10.3	17.8	4.0	34.7
채소류	6.7	17.5	0.4	-12.8	6.5	-3.4	0.6	36.8
기호식품	37.8	25.6	2.6	9.2	36.8	-2.6	3.4	33.3
수산물	39.6	22.8	1.6	23.2	37.8	-4.7	1.8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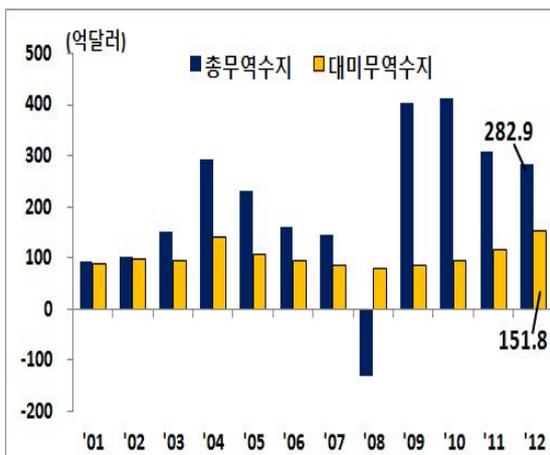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MTI 기준.

3) 무역수지 측면

○ (대미 무역수지 확대)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확대되었으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무역수지 흑자 증가세 유지

- 2012년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5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12년 총무역수지는 283억달러로 전년대비 25억달러 감소했으나,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5억달러 증가
 - 이는 2012년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무역수지가 감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후 대미 시장 진출과 FTA 지원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미 FTA로 인한 미국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 효과가 일부 품목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가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볼 때 대미 무역수지는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증가
 - 일본과 EU와의 무역수지는 적자 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특히 FTA 발효 이후 흑자증가폭이 5년래 최대치 기록
 - 중국과 ASEAN의 경우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임을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흑자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총무역수지와 대미무역수지 추이>



자료 : 무역협회.

< 주요국 대상 무역수지 비교>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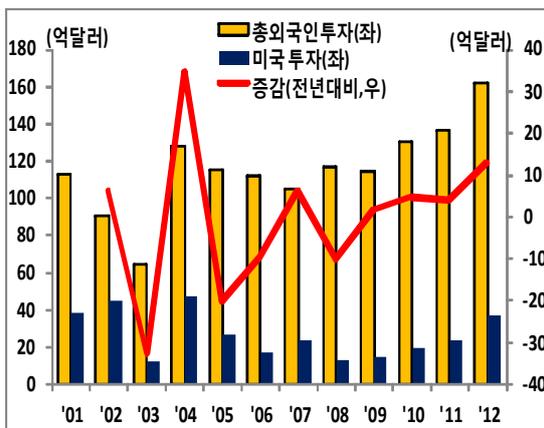
국가	'08	'09	'10	'11	'12
미국	80.1	86.1	94.1	116.4	151.8
일본	-327.0	-276.6	-361.2	-286.4	-255.7
EU	183.9	143.8	147.9	83.0	-10.0
중국	144.6	324.6	452.6	477.5	535.4
ASEAN	83.7	69.3	91.0	186.8	271.7
세계	-132.7	404.5	411.7	308.0	282.9

자료 : 무역협회.

4) 투자 측면

- (미국의 국내 투자 증가) FTA 발효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했고, 주요국과 비교할 때 투자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
 - FTA 발효 후 2012년 미국의 대한국투자는 전년대비 13억달러 증가한 36.7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최고치임
 - 전년대비 증가액도 2004년 이후 8년래 최대치이며 이는 FTA 발효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매력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비교해볼 때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 다음으로 투자증가액이 높게 나타남
 -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일본과 아시아 지역보다는 낮았으나, 중국이나 EU의 투자액보다는 높게 나타남
 - 미국의 대한국투자가 높아진 이유는 FTA로 인한 투자 환경 개선과 함께 미국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것으로 분석
 - 다만 1,2차 양적완화시보다는 2012년이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높게 나타나 FTA 발효가 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FDI)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투자액은 신고기준.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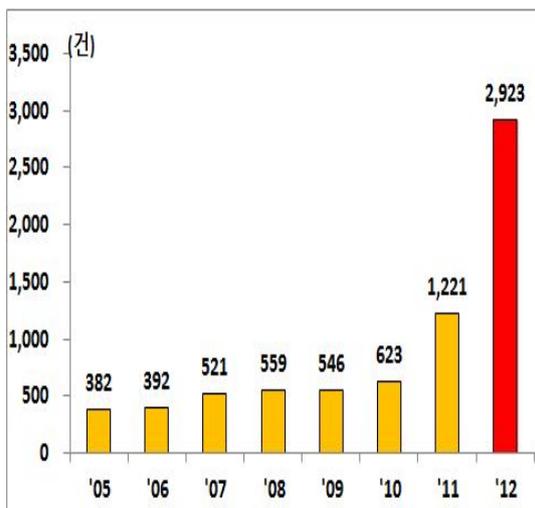
국가	2011		2012	
	금액	전년 대비증감	금액	전년 대비증감
미국	23.7	4.0	36.7	13.0
중국	6.5	2.4	7.3	0.8
일본	22.9	2.1	45.4	22.5
EU	50.3	18.4	26.9	-23.5
아시아	21.1	-27.0	43.1	22.0
세계	136.7	6.0	162.6	25.9

자료 : 지식경제부.
주 : 1) 아시아에서 일본은 제외,
2) 투자액은 신고기준.

5) 통상 환경 측면

- (통상 마찰 우려 증대) FTA 발효로 관세 장벽은 해소되었으나, 특허 소송 등 보호무역조치들이 확대되고,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증대
 - 한미 FTA의 발효로 15.8%의 대미평균관세율이 철폐(또는 단계 철폐)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되며, 합리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등 양국간 교역 개방이 확대
 -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 및 무역분쟁과 수입규제조치 등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 LG, 대우 국내 3사의 수입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승인
 -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과의 소송 1심 판결에서 5억 9,890억달러의 배상 판정을 받았고, 현대기아차도 지난해 미국에서 약 8억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받고 최근 합의
 -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및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 양국간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통상 마찰 가능성이 증대
 - 현재 제한되어있는 생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도록 미국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면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마찰 가능성 증대
 - 국내에서도 ISD 관련 재협상 요구와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등 협상 수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양국간 마찰 증대 우려

<미국 특허전문업체의 특허소송추이> <국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소송 사례>



자료 : Patent Freedom.

대상 기업	내용
삼성	- 애플 1심 소송결과 5억 9,890억 배상 판정 (2013년 3월 1일)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여부 심리중 -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신제품에 대한 2차 소송 2014년 3월에 시행 예정
삼성, LG, 대우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최종 판정. 삼성, LG, 대우 가전3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12년 12월 19일)
현대	-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현대차의 연비 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됐으며 8천억원 규모의 소송 제기 (2012년 11월)

자료 : 내외신종합.

3. 시사점과 대응과제

- (시사점) 한미 FTA는 지난 1년간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개방 확대에 따르는 통상마찰 증대와 농축산 분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2012년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미 수출(4.1%)과 무역 흑자(152억달러)가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한미 FTA 발효가 이러한 수출과 무역수지 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반면, 수입은 대체로 부진세(-2.8%)를 보였으나 향후 미국의 개방 압력 증대와 더불어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1주년의 영향과 평가를 통해 향후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²⁾
 - USTR은 지난 1월에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서비스협정(ISA)의 추진을 밝힌 바 있음
- (대응과제) 한미 FTA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통상 마찰과 개방 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 강화, 신 수출 주력품목 개발,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
 - **FTA 업그레이드** : 한미 FTA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한편 FTA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미 FTA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 원산지검증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지원과 전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높여야 함
 - FTA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지원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무역과 투자의 이익을 최대화

2) 내외신 종합.

- **통상마찰과 개방 확대에 대비** : 미국의 특허 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수출품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에 대비한 대응 전략과 협상팀을 사전에 구성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
 - 또한 향후 미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의 단계적인 인하에 따라 시장 잠식이 우려되므로 국내 농가의 구조조정과 지원 대책, 유통구조 개선 등의 다각적인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
 -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미국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협상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ISD 재협상 문제와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도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한미 FTA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필요

- **수출경쟁력 강화** : 관세 인하 효과 외에 적극적인 R&D 투자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
 - 주력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대상국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의 현지화 전략, 설명회 및 한류 등을 통한 마케팅의 강화 등을 추진

- **신 수출 주력품목 육성** : 신성장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바이오, 재생에너지, 전기차, 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수출 주력품목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여 수출 주력품목을 다변화

- **투자유치 활성화**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나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제도 개선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투자 설명회를 개최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최성근 (csk01@hri.co.kr, 2072-6223)